



박수근 미공개작 '노상' 추정가 8~10억에 경매

국내 미술시장에서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박수근의 작품 '노상(시진)'이 경매를 통해 공개된다.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은 25일 오후 6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룸에서 열리는 제1회 부산 미술품 경매에서 박수근의 1960년대 초반 작품 '노상'이 추정가 8억~10억원에 출품돼 박수근 작품의 기존 최고가를 경신할 지 주목된다고 16일 밝혔다.

출품작 '노상'은 묵관에 유채로 그린 27.3×22cm 크기 작품으로 장사를 마친 후 빈 함치박을 이고 귀가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 박수근 작품으로는 보기 드물게 컬러풀하게 담겼다.

박수근 작품의 기존 최고가이자 한국 근현대미술품 중 경매 최고가는 올해 2월23일 서울옥션의 100회 경매에 출품됐던 '시장의 여인들'(28×22cm·1960년대)로 9억1천만원에 판매했다.

서울옥션이 부산 지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경매에는 김환기의 '점'(추정가 1억2천만~1억5천만원), 김창열의 '물방울'(1억~1억5천만원) 등 대가들의 작품과 도성욱, 안성하, 정명조, 홍지연, 김지혜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 등 총 64점이 출품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에 안소연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 열리는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2007년 6월10~11월 21일) 국제미술전의 한국관 커미셔너로 안소연(45) 삼성미술관 리움 학예연구실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안씨는 이화여대 불문과와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큐레이터 학교와 미술관에서 연수한 후 1986년부터 10년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 연구관을 지냈고, 1996년 삼성미술관 리움으로 옮겨 현재 학예연구실장을 맡고 있다.

2007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의 전시감독은 뉴욕 현대미술관 큐레이터를 지내고 예일대 학장으로 있는 미국 출신 로버트 스토다.

/연합뉴스

광주시립미술관장 누가 되나

새 관장 인선 핫 이슈로

“차기 광주 시립미술관장은 누가 될까”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광주시립미술관장 인선이 지역 미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립미술관장의 인선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 미술 인프라인 시립미술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미술인들은 “시립미술관의 위상에 걸맞는 투명한 공모방식을 통해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술관장으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는 오건택 현 관장, 박지택 광주미협회장, 정운대 조선대미술관장, 배동환 신라대 교수, 김선희 전 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등이다. 비 미술계 인사로는 지형원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처럼 미술관장에 대한 허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인사권자인 광주시장의 입김이 반영되는 현행 미술관장의 공모 방식과 처우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광주시립 미술관장은 미술계 안팎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함으로써 ‘밀실인사’ 잡음은 물론이고 역량 있는 인사들의 진입을 차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부산, 전북, 대전 시립미술관은 전국 공모방식을 통해 관장을 영입, 미술행정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광주와



광주 시립미술관장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광주미술 행정을 이끌어갈 차기 미술관장 선임에 지역 미술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시립미술관 전경.

27일 임기 만료...자천타천 6명 물망 투명한 절차·처우 개선 여론 높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양화가 강연호(전 시립 미술관장)씨는 “더 이상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식견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능력·경험마인드를 갖춘 인사를 뽑기 위해서는 관장선임 제도를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영훈 조선대 미대 교수는 “관장을 공모한다 하더라도 공모 자체가 순수하게 운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임명권자의 중립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문화중심 도시 위상에 맞춰 현재 4급으로 정해진 미술관장의 직급을 상향시키는 등 유능한 인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각계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비디오로 즐기는 패션의 18가지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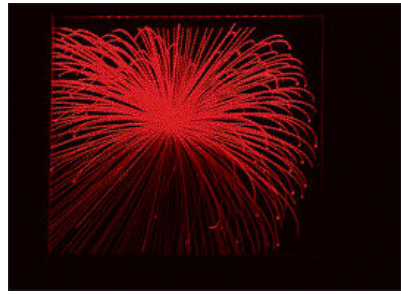
한·불 수교 120주년 비디오 아트전 21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비디오 아트전이 열린다.

프랑스 예술진흥원과 광주 프랑스 문화원은 프랑스와 한국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의상을 넘어서-비디오로 즐기는 패션의 18가지 색’전을 17~21일까지 조선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와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함께 준비한 것으로 예술과 패션 사이의 관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참여자가는 가스파르 위르키에비취,



인유자 작 '기운생동'

스테판 니콜라에브, 오귀스망 지벨 등이며 광주 지역 작가로는 이매리·인유자 씨가 함께 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양 출신 소설가 안영씨

세번째 수필집 '하늘을...'

광양 출신 소설가 안영씨가 세번째 수필집 '하늘을 꿈꾸며'(동이 퍼냄)를 발간했다.

책은 5부로 나누어 고향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 카톨릭 신자로서의 신앙심, 귀향을 준비하는 마음, 성지순례 기행문 등을 다룬 문체로 담고 있다.

전남여고 등 30여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저자는 정년 퇴임 후 활발한 집필 활동을 펼쳐 지난 2002년 소설집 '겨울나그네'로 제39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17~18일 광주문화예회관 등에서는 임방울 국악제가 열린다. 소리꾼들의 경연도 구경하고 명창들의 공연도 감상하면서 판소리에 한발 다가서 보자.

쉽고 재미난 대목부터 듣자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문화감각을 키우자

(7) 판소리 즐기기

우리 전통음악 가운데 대중과 가장 친숙했던 장르는 판소리였다. 민초들을 웃기고 울렸던 소리꾼들은 요즘의 '스타 연예인' 부럽지 않았다.

특히 광주 광산 출신 국창 임방울(1904~1961)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음반 '속대머리'는 120만장이 팔려 나갔고, 그의 장례식날 서울 시청앞을 지나던 상여는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요즘 들어 '판소리'가 예전만큼 명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도 각종 국악 무대에서 빠지지 않고 공연되는 게 '판소리' 한 대목이다.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 반주에 맞춰 극적(劇的)으로 긴 이야기를 '소리(歌)'와 '아리리(말)', '발림(몸짓)'을 통해 전달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이다.

크게 동편제·서편제로 나누

판소리의 유래는 크게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눈다. 남원 출신 송흥록이 서조인 동편제는 빠르고 씩씩하며 웅장한 남성적 소리로 이름이 높다.

반면 보성에서 활동한 박유전이란 만든 유과인 서편제는 느리고 애잔하며 장식음악과 기교가 많은 게 특징이다.

판소리를 하나의 문화 장르로 완성시킨 사람은 신재효였다. 현재는 '흥보가'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심청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이 활발히 공연되고 있다.

판소리 완창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춘향가'의 경우 유과에 따라 최장 8시간이 소요되며 '심청가'는 평균 6시간 정도 걸린다. 가장 짧은 작품인 '흥보가'도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사실, 요즘의 판소리는 고여 등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창작 판소리가 불려지기도 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이자람씨 등 젊은 소리꾼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소재를 얻은 판소리가 공연되기도 한다.

공연 때 추임새 넣는 게 예의

판소리를 처음 접할 때는 사실이 어려운 '수궁가' 보다는 '춘향가'의 '사랑가' '이별가', '심청가' '어사또 출무', '흥보가'의 '흥보 매맞는 매 맞는 대목' 등 가사가 쉽게 들리는 작품의 한 대목을 선택해 듣는 게 좋다.

또 공연을 관람할 때는 '얼씨구' '좋다' '잘한다' 등의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서 예의다.

국악인 송순섭씨는 “소리를 들을 때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목청 뿐 아니라 사실에도 귀를 기울여 감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침 17~18일에는 광주문화예회관 등에서 임방울 국악제가 열린다. 소리꾼들의 경연도 구경하고 명창 조상현 선생의 공연도 감상하면서 판소리에 한 발 다가 보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민해경 김수희

편승엽

19, 20일 26, 27일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정우부동산렌드
☎ (TEL) 071-0823 011-007-2213
(관동동 대영아파트 동영고추문사예)

상업지 5층상가 오피스텔
-구례읍 봉림동 (송림아파트근) 대88 전350 용2255천 매도7억
1200세대 APT 1층상가 16평
-나주대호동 1층 88평 2건 (슈퍼,식료,세탁,미용 등 자유업) 18평 1건당 1억6천
회수읍 농가주택 187평
-다지리 부지 187평 한옥1동 26평 용자 2800포화 매도가 8억2천만
관리지역 대지2100평(공장부지)
-순천 황원선반의(구례읍부근) 경전강변 도로변 평당 38만원(공시가33만원)
남구 승촌가든스당 257평 매도
-지석강 부근(주유소부지역) 부지680, 전평70평:3억5천만
나주 도로 성산리 배밭 4700평
-신북지나 영안간 도로주변(신교 13년생 800주 식재) 평당8천원
정통 유적 대촌(전·담·임야)
-2000평(보통사위) 담장(상부)매도가8억5천
진월동APT입구 상가부지 380평
-10M도로변 평당2700원 유적(원종교사설)려방
나주 남평 서산리(드름강유원지)
-관리지역 1260평 도로변 평당 20만원
나주공단 내곡 생녹지 458평
-소재지 일구 포동(도동)평당15만원
그린벨트 임야 14만 2000평 매도
-담양 남평 정곡리(고르쇠)나무 식재, 퇴기상(비위분포) 평당3500원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한글주소: www.bds13.co.kr 또는
영문주소: bds13.co.kr 으로

한국공인중개사
☎ (TEL) 062-7100 (TEL) 010-4325-1323
(신항지구 신가정학고 옆)

장성지역

▶공장부지, 불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평수대로 가능한
* 지면관계상 물건 물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산업
●대지-약3000평
●건물-철골조 2층 437평
●건물-철골조 248평
매매가-12억(철충가능)

*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TEL)522-9422, TEL011-643-3210
(동림2지구 앞 허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대

빙·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